제2회 「닛케이아지아쇼」 수상

崔亨燮 과총회장

▲ 쓰루다(鶴田卓彦)니혼게이자신문사장으로부터 상장을 받는 崔회장(왼쪽)

崔亨燮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5월14일 일본 데이고쿠(帝國)호텔에서 개최된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사 제정, 제2회 「닛케이아지아쇼(日經亞細亞賞)」 시상식에서 기술개발부문 수상자로서 상장과 부상 3백만엔을 수여받았다. 일본 정·관·재계에서 다수의 내빈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崔회장과 수상의 영예를 함께 한 사람은 파탄 직전의 인도 경제를 살려내 '개혁의 설계사'라고 불리우는 인도의 전 재무부장관 만모한 싱박사(경제발전부문)와 민속음악을 세계에 울려준 필리핀대학 명예교수이며 작곡가인 호세·마세다박사(문화부문)였다. 「닛케이아지아쇼」는 일간경제신문으로서는 세계 최대부수(약 3백만부)를 발행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국내외에 미치고 있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작년에 창립 1백20주년을 기념해서 창설한 포상제도. 아시아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그룹을 매년 경제발전, 기술개발, 문화의 3부문에서 각 1명씩 선정하여 표창한다.

崔회장의 수상 결정은 니혼게이자이신문 4월21일자 조간에 발표됐고 동시에 동지에 '아시아 발전을 위해 분투'라는 큰 제목아래 崔회장이 朴正熙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아래 KIST(당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현 KAIST)소장과 과학기술처장관으로서 공업을 짊어져 나갈 연구자, 기술자, 기능자 양성에 크게 힘쓴 업적과 일선에서 물러난 뒤엔 과학기술정책 입안, 실시면에서 동남아 여러 나라를 크게 도와 '닥터 최'의 이름은 아시아의 정책담당자들사이에 널리 알려졌다는 등의 사실을 대대적으로 소개했다. 동 기사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내는 「닛케이위클리」라는 영자신문(4월28일자)에도 게재됐다. 崔회장의 수상에 대해서는 국내 여러 주요 일간지들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크게 보도했다.

崔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이라는 수상기념 강연에서 "동남북아에서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려면 경제와 기술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우선 공생이라는 개념아래 적절한 지역간의 기술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동강연 내용은 본지 7월호에 전재할 예정).

이어서 崔회장은 주로 일본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과학기술과 정책의회」(회장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郎 중의원의원)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21세기를 향해서의 한국의 기술개발대책」이란 제목의 강연을 했다.

'97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개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97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항공우주과학분과 워크숍이 지난 5월15일~17일까지 3일간 미국 워싱턴 D.C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항공기·헬리콥터 및 발사체 개발기술」을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은 항공우주기체설계, 항공우주구조 및 소재, 항공우주추진기관, 실험·이론 및 수치계산법, 비행역학 및 조종, 제조 및 가공기술, 기타항공우주관련기술 등 7개 과제로 나뉘어 한국의 김진철박사(한국항공우주연구소, 위성본체그룹장)의 「다목적 실용위성의 설계 및 개발」 미국 Hassan박사(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Recent Developments in Transition」 등 34편의 논문발표 및 종합토론이 전개되었다.

한편 5월16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에서 鄭助英과

총상임부회장은 安世榮재미과협회장에게 한미과학협력센터 개소기념축하금을 전달하였다.

◀ Bernard Grossman 교수(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가 학술회의 참가자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 개소기념축하금 전달장면. 왼쪽부터 金昞源과총부회장,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 安世榮재미과협회장, 全경철차기재미과협회장.

전기전도 발열콘크리트 개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소장 孫永睦) 건축환경연구팀의 유헌형박사와 에너지재료연구팀의 김홍수박사는 정부의 지원 및 벽산기술연구소와의 공동연구로 기존의 콘크리트에 전기전도성을 부여하는 특수재료를 첨가함으로써 전기를 전도하지 않는 기존 콘크리트의 개념을 혁신하여 콘크리트의 전기저항을 금속수준으로 크게 낮춘 전기전도 콘크리트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팀이 개발한 전기전도 콘크리트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기존 콘크리트의 개념을 깬 특수콘크리트로서 전기를 공급하면 발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전기전도 콘크리트의 발열온도 범위는 약 800℃까지이며 별도의 특수첨가제를 혼합할 경우 발열온도를 1800℃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

IMO-2000 조직위원회 사무실 현판식
대한수학회

대한수학회(회장 張健洙)는 2000년 제41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위한 IMO-2000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승제교수, 서울대수학교육과) 사무실을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907호에 마련하고 지난 4월2일에 한국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 위원장(박진호 한국과학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IMO-2000 조직위원회는 대회준비가 종합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조직내 위원회별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별 업무분장 및 협조체계, 행정체계 확립, 연도별·위원회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대회준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게 된다.

'97 춘계특별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개최
대한조선학회

대한조선학회(회장 李在旭)는 지난 4월25일~26일 양일간 산·학·연·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해양관련 기술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7 춘계특별강연회 및 연구발표회를 해군사관학교에서 개최했다. 「조선기술과 해군력」이란 주제로 마련된 특별강연은 심이섭대령(해군본부 조함단)의 '함정건조 현황과 조선기술 발전방향'과 송준태본부장(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활용현황과 발전방향'에 이어서 장석소장(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의 '조함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연구발표회에서는 설계, 유체, 구조, 진동소음분야로 나누어 1백2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원격진단시스템 발표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회장 高昌舜)가 정보통신부 국책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초고속망을 이용한 원격의료정보시스템의 개발'(연구책임자 : 조한익, 서울의대) 과제 '97년 2차년도 연구수행에 대한 시연회를 지난 4월30일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임상 제2 강의실에서 3백여명의 관련 전문가 및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초고속망을 이용한 원격진단시스템에 대한

초기모델의 개발을 목표로 수행된 이 과제 시연회에서 발표된 원격진단시스템은 초고속선도망을 이용하는 첫 의료정보시스템으로서 기존의 원격의료정보시스템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달의 과학자상 5월 수상자 시상식 개최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재단(사무총장 朴辰好)은 지난 5월23일 과학기술처 상황실에서 이달의 과학자상 5월 수상자로 '난치성 혈액종양질환 치료를 위한 다양한 골수이식 기법'을 연구해 온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춘수교수를 선정하여 시상식을 가졌다. 김교수는 지난 83년 국내 최초로 백혈병 환자에게 동종골수이식을 성공시킨 후 현재까지 각종 난치성 혈액종양환자 5백여명에게 동종 및 자가골수이식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고 95년에는 비혈연간 골수이식을 우리나라 최초로 성공하는 등 국내 골수이식기법을 정착,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달의 과학자상은 산·학·연에서 연구개발에 신명을 바치는 과학기술자의 연구개발의욕 고취 및 존경받는 과학기술자상 정립을 위해 한국과학재단과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관으로 올해 새롭게 제정하여 매월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게 된다.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처 장관 표창이 수여되고, 부상으로 포상금 5백만원과 기념패가 주어진다.

'97 춘계학술강연 및 논문발표회 개최
대한기계학회

대한기계학회(회장 宋森弘)는 '97 학술강연 및 논문발표회를 5월16일 새로 준공한 한국기계연구원 대전본원 설계기술지원동 강당에서 개최했다. 동학회는 이번 학술행사를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학술강연회, 충청지부 춘계학술대회와 공동 개최하였는데 학회부문과 지부의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행사로서 지부의 활성화와 학회운영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기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핵심이 되는 국내 초정밀연구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학술강연회를 가졌다.

제73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물리학회

한국물리학회(회장 崔德隣) 제73회 정기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가 지난 4월25일~26일 양일간 울산대학교에서 학회 역대회장, 구본호울산대학교총장을 비롯한 1천6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곧 이어 열린 물리학회상 시상식에서는 김종오고려대명예교수가 우주방사선 물리학 및 고에너지 물리학연구에 전념해 온 공로로 제5회 성봉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학술상은 김화택전남대교수, 최상돈경북대교수, 논문상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최안성씨, 장려상은 유병길 부산교육대교수가 각각 수상하였다. 또 학회 전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기초과학지원연구소의 최인식씨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창립50주년 및 「특허와 상표」 창간 30주년 기념 현상공모 논문당선작 시상식 및 기념심포지엄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회장 金明信)는 5월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창립50주년기념 및 「특허와 상표」 창간 30주년기념 현상공모논문 당선작 시상식과 기념심포지엄을 특허청, 과총, 한국발명진흥회 후원으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내외적 동향에 비추어 본 우리 상표법의 과제와 개선방향」이란 논문을 발표한 김원오변리사에게 최우수논문상(상금 5백만원)이, 「실용신안무심사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발표한 정태련 변리사와 「특허법원과 국제경쟁력제고」를 발표한 STEPI박동현박사에게 우수논문상(상금 각3백만원)이 수여됐다. 이어서 열린 기념심포지엄에서는 세편의 현상공모 논문당선작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崔亨燮과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과학기술 및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함께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변리사역할 정립"을 강조했다.